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2024 JULY Vol.258

# CHANNEL

**뜨거운 햇살 아래,  
활기찬 여름 에너지!**

삼성 

# 삶의 활력과 즐거움이 가득한 여름!

푸른 바다와 햇살이 빛나는 계절 여름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뮈는 “여름은 삶에 활력과 즐거움을 불어넣는 계절”이라 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름을 맞이하고 있나요?

푸른 나무 그늘 아래의 쉼,  
자유로운 바닷속에서의 힐링,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즐기는 여유….

여러분들의 여름이 시원하고, 또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여름날을 응원합니다!



# CONTENTS

Vol  
**258**



## 건강한 성장

### 04 Emerging Trends

AI 부스터 장착한 금융,  
금융산업 플레이어의 대응 방향은?

### 06 Market Reader

소프트웨어로 달리는 자동차,  
완성차 업계가 꿈꾸는 미래

### 08 Team Story

M&A 관련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는  
'All-rounder' Deal Advisory9본부

### 10 Client+

No.1 AI 로봇&드론 전문 기업 '에어릭스'

### 12 Expert's Advice

핀테크 리빌딩 (Rebuilding) 전략은?  
- AI·해외 진출·융복합에 관하여!

### 14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 행복한 일터

### 16 People First

'제3회 삼성KPMG 챔피언십' 열띤 호응  
속에서 마무리!  
우승컵은 ICE1본부가 들어 올려

### 20 삼성인톡

삼성인, 여름휴가 계획을 알려줘!

### 22 인재양성소

GEP 14기 우수자들의  
특별한 해외연수 이야기

### 24 세계가 열린다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미국 Korea Practice 편

###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소통의 달인

## 28 心 Care

당신이 지쳤다는 신호 : '번아웃!'

## 30 Samjong News

2024년 정기 파트너 승진 인사 발표 외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 AI 부스터 장착한 금융, 금융산업 플레이어의 대응 방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고객과 직원 경험까지 혁신하는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AI Transformation, AX)’이 주목받고 있다. 빠르게 진화하는 AI를 업무와 서비스에 적용하는 금융기업 또한 증가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AI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AI에 주목하는 금융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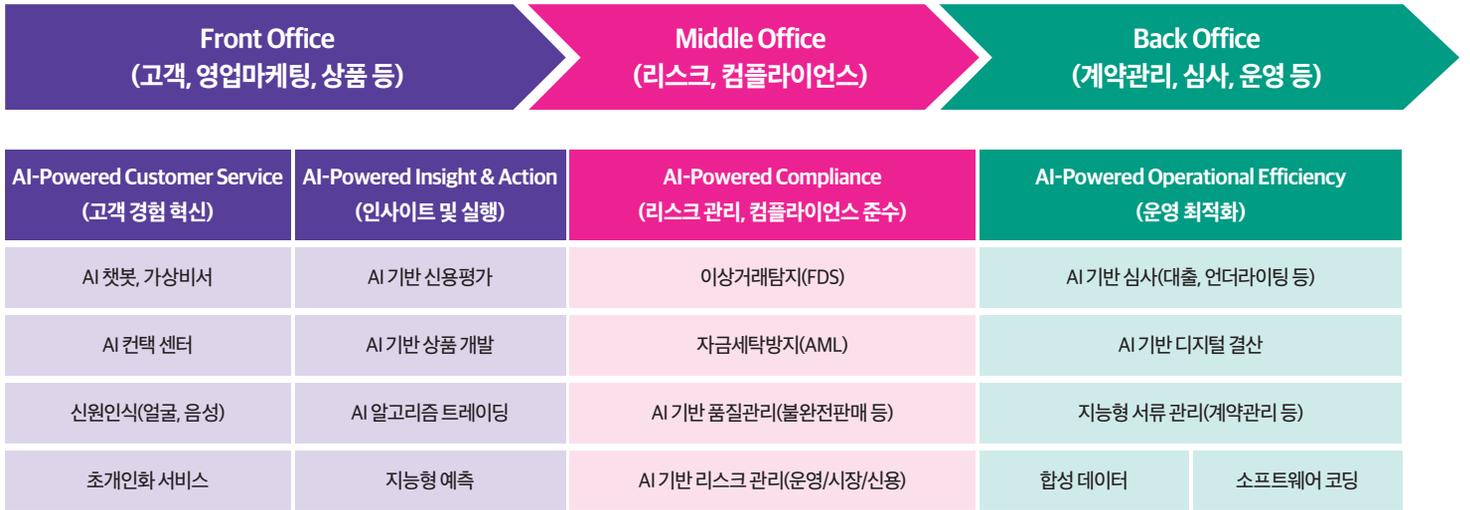
금융서비스는 이미 전산화된 금전이 무형으로 이동한다는 속성을 지니며, 스마트폰 등장 이후 디지털 혁신이 발현된 금융산업에서 AI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핀테크와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로 경쟁도가 높아지는 금융권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인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업들은 운영,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등 핵심 비즈니스 영역에 AI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계 선도하고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융권의 AI 적용과 고도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 AI 투자와 활용을 확대하는 글로벌 금융사

글로벌 상위 50개 은행의 AI 관련 투자 비중은 2014년 0.2%에서 2023년 4.0%로 크게 증가했으며,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Databricks, 4Paradigm, ContentSquare 등 다양한 AI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중에는 Stripe, Perfios 등이 AI 역량을 인정받으면서 한파가 불어온 투자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후기 단계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국내외 금융사의 AI 활용 또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 내 인사 및 리스크 관리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프론트(Front)-미들(Middle)-백(Back) 오피스 전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프론트 오피스에서는 대표적으로뱅크오브아메리카가 2018년 AI 기반 금융 비서인 ‘에리카(Erica)’를 출시하여 문자와 음성 대화를 통해 365일 실시간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으며, 미국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AI를 기반으로 종합 자산관리 관점의 맞춤형 재무설계 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AI 활용을 통한 금융 조직 내 밸류체인 전반의 변화



Source: 삼정KPMG AI 센터

미들 오피스에서는 디지털 결제 증가에 따른 사기 탐지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년 2월 마스터카드는 생성형 AI로 금융 사기를 적발하는 모델을 출시하여 사기탐지율을 평균 20% 개선했고, 씨티은행은 AI를 통한 규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간소화 작업을 진행했다. 백 오피스에서는 특히 스위스리, 다이도생명보험 등 보험사를 중심으로 개인 재무, 건강 데이터 등을 통해 고객 위험평가 및 계약인수 심사, 부정보험금 청구 탐지, 지급 프로세스 자동화 등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 본격화된 AI 시대,

#### 리스크 우려와 책임 있는 AI 활용 화두

한편 AI 활용 영역이 확대되면서 데이터 편향과 차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리스크 우려가 점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의 잠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가 화두로 떠올랐다. AI의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 내부적으로 AI 개발·이용·관리와 관련한 프로세스별 다각적 리스크 검토 과정이 필수적이다.

국가적으로도 AI 기술을 촉진함과 동시에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AI 사용을 위한 AI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 법안이 마련되는 모습이다. EU에서는 AI가 생성하는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AI 법(AI Act)이 2024년 3월 의회를 통과했으며,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10월 규제와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AI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금융분야 AI 및 데이터 분석 활용에 관한 14개 FEAT(Fairness·Ethics·Accountability·Transparency) 원칙을 제시하는 등 AI 활용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산업 발전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의 AI 접목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과 안전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이 공개되

면서 AI 기반 초개인화 통합 솔루션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서비스 제공 기업은 AI 시대의 상품, 서비스 제공 방식, 고객 접점을 재정의하고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 혁신과 지능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금융권 기업은 AI 활용 목적을 명확화하고 보안과 윤리 측면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에 관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NTACT US



AI센터  
이동근 전무  
Tel. 02-2112-7587  
E-mail. tongkeunlee@kr.kpmg.com

경제연구원 최연경 책임연구원  
Tel. 02-2112-7769  
E-mail. yeonkyungchoi@kr.kpmg.com

# 소프트웨어로 달리는 자동차, 완성차 업계가 꿈꾸는 미래

올 1월에 열린 CES 2024에서 완성차 기업들은 SDV(Software Defined Vehicle)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시도를 선보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그룹 내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인 포티닷(42dot)을 통해 SDV 플랫폼 로드맵과 전략을, BMW는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경험에 초점을 맞춘 운영체제를, 혼다는 독자적인 차량용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 개발을 소개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자동차 산업의 화두인 SDV에 대해 알아본다.



## SDV 핵심, 차량용 OS

완성차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완성차 기업은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자동차', 즉, SDV(Software Defined Vehicle)를 구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SDV는 그 가치와 핵심 경쟁력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되므로 완성차 기업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자사 차량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 때,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원활하게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운영체제(OS)가 필수적이다.

완성차 기업은 크게 3가지 관점(자체 OS 개발, 외부 OS 채택, 자체+외부 채택 혼재)에서 차량용 OS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토요타,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테슬라 등은 자체적으로 차량용 OS를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했다. 한편, 스텔란티스는 폭스콘의 자회사인 FIH모바일과 합작사를 만들어 차량용 OS를 개발하고 있고,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는

OS 파트너로 구글을 선택했다. 이렇듯 완성차 기업은 각 사 특성과 전략에 맞춰 차량용 OS 시장에 다각적으로 대응 중이다.

## SDV 구현을 위해 극복해야 할 3가지 이슈

완성차 기업이 차량용 OS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SDV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기업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고객, 빅테크, 완성차 기업 자체 니즈로부터 도출된 이슈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우선, SDV를 최종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고객의 니즈를 살펴보자. 이들에게 자동차는 또 다른 생활 공간이다. 고객은 차량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완성차 기업은 차량 내 고객 경험을 충족시킬 서비스(애플리케이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용 앱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 OS를 중심으로 경쟁 및 협업을 하고 있는 빅테크의 니즈를 알아보자. 빅테크는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새로

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SDV 시장에서 자사의 영향력이 확대될길 기대한다. 따라서 완성차 기업은 인포테인먼트 OS를 중심으로 점차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빅테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SDV를 구현하는 주체인 완성차 제조사의 니즈도 살펴보자. 완성차 기업은 SDV를 경쟁사보다 빨리 구현하기 위해 OS 내재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양산 역량의 한계로 자체 OS 내재화를 위한 인력 부족 이슈에 직면해 있어 당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완성차 기업은 이러한 이슈를 타개하고 경쟁력 있는 OS 내재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이루고자 한다.

## 완성차 업계의 대응 전략은?

앞서 언급한 3가지 이슈를 극복하기 위한 완성차 업계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완성차 기업은 차량 내 고객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차량 내 애플리케이션 이용 편의성·다양성·최신성을 충족해야

##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촉발 이슈 및 완성차 업계 대응 전략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한다. 이를 풀어 말하자면,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점에 원활하게 다운로드·구매했던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서 각 서비스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잘 유지된다면 완성차 기업은 차량용 앱에 대한 구독 서비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구독 서비스 모델의 일례로 기아 FoD (Feature on Demand) 서비스를 들 수 있다. 2023년 5월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아 커넥트 스토어 (Connect Store)를 통해 EV9에 FoD 서비스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FoD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듯이 고객이 필요할 때마다 소프트웨어 기능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고객의 앱 이용 편의성·다양성·최신성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완성차 기업은 SDV 구현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완성차 기업을 중심

으로 한 다각적인 협업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완성차 기업은 타 완성차 기업, 자동차 부품사, IT 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적극 진행하는 한편, 일부 완성차 제조사는 스마트폰을 제조하며 빅테크가 강점으로 내세운 고객 데이터까지 확보하고자 한다. 중국 전기차 기업인 니오(NIO)와 폴스타 (Polestar)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성차 기업으로, 이들은 차량 데이터 외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는 고객 데이터까지 보유함으로써 고객을 락인(Lock-in)하고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완성차 기업은 자체 OS 내재화에 필요한 역량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인력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 때 기존 인력과 새롭게 합류한 인력 간 협업 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완성차 기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과 협업 시 업무 수행 방식에서 간극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회사는 미리 인지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포티

투닷을 인수하면서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분리해 유연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면서 각각의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SDV는 과거 내연기관차의 등장과 견줄 정도로 현재의 자동차 생태계를 완벽히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에 관한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NTACT US



IM3 본부  
신동준 전무  
Tel. 02-2112-0885  
E-mail. dongjunshin@kr.kpmg.com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연구원  
Tel. 02-2112-7095  
E-mail. nkim15@kr.kpmg.com

# M&A 관련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는 'All-rounder' Deal Advisory 9본부

삼정KPMG는 지난해 9월, 재무자문(Deal Advisory) 부문을 확대 개편한 바 있다. 기존 7개 본부에서 10개 본부로 확대 개편하며, 세분화되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중소 및 중견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자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Deal Advisory 9본부를 소개한다.

## DA9본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 Sell-side/Buy-side Advisory

회사 매각 자문, 투자 유치 자문, 인수자 측 Valuation 등 M&A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고객이 최적의 거래 조건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Due Diligence

매도자와 인수자 관점에서 재무 실사를 수행한다. 실사를 통해 거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 Start-up Innovation Center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부터 지분 매각까지 다양한 업무를 지원한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한다.



DA9본부 파트너들이 모여  
파이팅을 외치며 미소 짓고 있다

### 고금리 상황 속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국내외 기관은 투자전략 정교화, 자산 다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요 대기업들은 비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이며, 다수의 중견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자자 및 사모펀드들에게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시장 상황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Valuation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환경은 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M&A 투자 대비 높은 자본조달 비용에 노출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Valuation 기회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예상 투자수익률 및 Exit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 대상의 현황과 현금흐름에 대해 깊은 수준의 실사 및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M&A 관련 모든 서비스 제공

지난 2023년 9월 새롭게 개설된 Deal Advisory9본부(이하 DA9본부)는 7명의 파트너와 함께 5개의 Deal팀(1~5팀)과 2개의 실사팀(6~7팀)으로, 총 67명의 본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DA9본부는 M&A의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식도가 다양한 식재료를 다루기에 유용한 칼이듯이, DA9본부는 고객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다. 무엇보다 DA9본부는 M&A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M&A 시장의 'All-rounder'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A9본부의 주요 업무는 크게 Sell-side/Buy-side

## DA9본부에 대해 소개한다면?



**백영걸 전무 (본부장)**  
younggulpark@kr.kpmg.com

#### 개성 넘치는 본부

우리 본부는 다양한 전문성과 각자만의 강점을 지닌 개성 넘치는 본부입니다. 총 7개 팀으로 구성되어, 미디어/콘텐츠, 중소/중견 PE 매각, 밸류에이션, 경영권 분쟁 및 가치평가, 스타트업 투자유치, PE 전문 실사, 대기업 카브아웃(carve-out)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고객 만족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백향현 상무**  
cbaek@kr.kpmg.com

#### 변화와 흐름에 발맞춰 서비스 제공

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올해 비주요 자산을 매각하려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대기업이 사업부를 매각하는 카브아웃 딜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송학 상무**  
songhakpark@kr.kpmg.com

#### 국내 대기업부터

#### 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본부!

우리 본부는 국내 대기업 및 중견 기업과 국내외 PE를 대상으로 재무자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중소, 중견 기업의 PE 매각 전문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향태 상무**  
ykim32@kr.kpmg.com

####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다양한 팀을 백영걸 본부장님께서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리더십 하에 모두 하나 되는 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dvisory, Due Diligence, Start-up Innovation Center의 세 가지로 분류되며, 주로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국내외 PE를 대상으로 재무자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다방면 고객 만족 실현! 신뢰받는 본부로 나아가는 것

DA9본부에서는 고객의 니즈(Needs)를 다방면에서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New Product를 개발하고 성공시키고 있다. 먼저 Deal팀에서는 모 회사의 합병을 통한 나스닥 상장 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

고 있다. 아울러 실사팀에서는 KPMG Deal Advisory에서 추진 중인 'Elevate Program'에 적극 협조하여, CDD(Commercial Due Diligence)와 FDD(Financial Due Diligence)를 통합해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고객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거래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DA9본부는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ALUX

# No.1 AI 로봇&드론 전문 기업 '에이럭스'

2015년 설립된 에이럭스는 최대 규모의 교육 네트워크와 로봇&드론 제작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최초로 SMT 생산 라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국내에서 개발, 제조, 유통, 교육까지 전 과정을 실현한 '메이드 인 코리아' 기업이며, 해외에서도 K-로봇의 저력을 보여주며 세련된 콘텐츠와 높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R&D) 노력을 바탕으로 드론 및 AI 로봇 업계를 리드하며 미래 시장을 확대해가는 에이럭스를 소개한다.

- 1 서울 도봉구 '씨드큐브 창동' 신사옥으로 확장 이전한 에이럭스
- 2 에이럭스 내부 전경
- 3 'G-PRC'에서 진행한 드론 경기
- 4 글로벌 로봇 코딩 대회 'G-PRC' 현장
- 5 'CES 2024'에서 CES 로봇틱스 부문 혁신상 수상한 스탠드얼론 코딩 로봇 '비누(VINU)'



**드론, 로봇, 코딩, 유통과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

2015년 11월 18일 설립된 에이릭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 네트워크와 드론&로봇 제작 기술을 보유한 기술 기업이다. 로봇설계, AI 교육 등 30개 이상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드론, 로봇, 코딩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종사자를 위한 유통과 커뮤니티 플랫폼까지 운영하고 있다.

에이릭스는 KBS미디어와 코딩교육 사업 제휴 계약을 맺어 KBS2TV 정규 방송을 시작으로 코딩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그 이후 조립 로봇 분야, AI 코딩 로봇 분야 그리고 드론 분야까지 기술과 교육의 범위를 한정 짓지 않고 계속해서 제품군을 확장시켰으며 교육종사자들이 유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내일은쌤'까지 개발했다.

**로봇 & AI 교육 업계 선도해,  
학교 현장 교육 인프라 부문 1위**

드론사업부, 로봇사업부, 교육사업부, 교육플랫폼본부, 교육네트워크본부, 그리고 해외법인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사업을 전개 중인 에이릭스는 끊임없는 연구개발(R&D) 노력을 바탕으로 로봇 및 AI 교육 업계를 리드하며 로봇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에이릭스는 자체적으로 로봇, 기술 연구소와 교육 콘텐츠를 보유해 각 분야 전문 연구원들이 교육자료와 교구를 개발하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에이릭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실현한 '메이드인코리아' 경쟁력으로 높은 신뢰도를 받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학교 현장 교육 인프라 부문 1위를 지키고 있다. 에이릭스의 로봇교육을 경험한 학생 수는 전국에 걸쳐 30만 명 이상으로, 지사 40

여 곳을 통해 2,500개 이상 학교에 전문교구 유통, 에이릭스가 보유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강사 지원 등 첨단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로봇, 드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한 '프로보'는 70종 이상의 교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1/3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조립용 로봇 '프로보 커넥트', '프로보 테크닉', 언플러그드 시코딩로봇 '비누(VINU)', 교육용부터 산업용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제품까지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위상 떨쳐!**

에이릭스는 중국 법인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두바이, 네덜란드, 스위스, 헝가리, 아랍에미리트, 영국, 브라질, 러시아,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드론 및 로봇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에이릭스는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전 세계 아이들을 대상으로 드론&로봇 대회 개최하고 있다. 올해 10번째 대회인 'G- PRC(GLOBAL

PRO ROBOT CHAMPIONSHIP) 로봇 대회'는 누적 12만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일본 등의 국가와 함께하는 글로벌 로봇대회이다. 본 대회는 학생 대상으로 로봇교육인재 양성을 위해 드론/로봇/코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경쟁하고 협업하여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을 키우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열리는 '교육기술 박람회(BETT SHOW)'에 3년간 참가해 국내 최초 언플러그드 코딩 로봇 비누(VINU)를 시연하며 호평을 받기도 했으며 BETT Show(베트쇼) 2024에서 시상하는 'BETT Awards(베트 어워드)' 파이널리스트에도 올랐다.

또한, 2024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4'에서 에이릭스의 스탠드얼론(Stand-Alone) 코딩 로봇 '비누(VINU)'는 CES 로봇틱스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에이릭스는 현재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권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등을 대상으로 미래 교육 교구 및 콘텐츠 수출을 진행 중이다.



# 핀테크 리빌딩 (Rebuilding) 전략은? - AI·해외 진출·융복합에 관하여!

핀테크 산업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기술 도입 등 혁신과 변화를 거듭하며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핀테크 산업 전반이 부진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삼성KPMG 핀테크 전문가를 통해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안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들어본다.

## Q 국내 핀테크 산업은 어떻게 발전해왔나요?

국내 핀테크 산업은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오픈뱅킹 등 다양한 핀테크 지원 정책에 기반하여 크게 발전해왔습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 수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0.7%씩 증가해 왔으며, 2022년 말 기준 3만 2,541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 금융서비스의 누적 건수는 303건을 돌파했으며, 이중 1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 중 핀테크·빅테크사가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포함하여 36%를 차지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위탁테스트 또한 선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사와 협업 촉진 관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Q 최근 국내 핀테크 산업이 당면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핀테크 산업 전반이 부진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으며, 2023년에도 보수적인 투자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불황으로 인해 발전 속도가 저하되며 핀테크 산업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B2C 기업은 지속적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삼는 핀테크 기업들은 고객 확보 등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에 헬스케어, 모빌리티, 커머스 등의 타 산업과 융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사업 모델을 만드는 B2B 모델을 활성화하며 수익모델을 재정비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차별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장확대 차원에서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해외 진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Digital 김세호 상무

Tel. 02-2112-7879  
E-mail. seihokim@kr.kpmg.com



## Q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핀테크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금융혁신을 주도할 유망 핀테크 기업 K-Fintech30을 선정하여 정책자금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2025년까지 3년 동안 총 30개 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작년 1차 모집을 진행하여 10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금년과 내년에 각각 1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젠글로벌은 자체 AI금융솔루션을 통해 인도네시아 그랩(Grab)과 E-모빌리티 시장에 필요한 banking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센트비는 인도네시아 현지 해외송금 라이선스를 보유한 로컬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중소기업인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B2B 비즈니스를 고도화하는 등 핀테크 기업들은 그간 쌓은 업력과 강점을 활용하여 저변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하여, 그간 핀테크 사업에서 노하우를 쌓은 다수의 기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인가를 위해 4개의 컨소시엄이 만들어져 출사표를 던졌으며,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업에 진출하기 위해 각각의 역량을 고도화하며 시너지를 내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Q 핀테크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포용 확대를 위해 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금융권의 AI 도입 등 금융 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는 망분리 등 규제를 제정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 개발이 망분리 규제로 인해 유연한 개발 환경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보안 위험을 고려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성장금융의 핀테크 펀드 등을 통해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핀테크 혁신펀드인 2호 펀드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라 맞춤형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사업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테스트, 혁신 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신규 투자 유치로 이어져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며 핀테크 리빌딩을 위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핀테크랩 등을 통해 그룹 내 계열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체류로 금융상품 개발과 서비스 도입을 진행하는 등 과거의 지원 개념을 넘어 자사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Q 이러한 내용을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던데,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어떤 행사인가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는 오는 8월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6회차를 맞이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국내 금융 관련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지난해 행사에서는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지자체 등 82개 전시부스가 조성되고, 미국·호주·싱가포르·일본·UAE 등 총 14개국 15개 부스에 참여해 투자유치와 비즈니스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가운데 총 11,000명 이상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역시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해외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고 사업모델 홍보 및 투자유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삼정KPMG의 Digital분부는 2019년 1회 행사부터 매년 중요한 역할로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한국 핀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Go-To-Market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핀테크 리빌딩 (Rebuilding) 전략- AI·해외 진출·융복합'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행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KOREA FINTECH WEEK 2024)

일시: 2024. 8. 27.(화) ~ 8. 29.(목) 10:00 ~ 18:00

장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아트홀 1~2관

주제: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사우디아라비아의 낮 최고기온이 50도에 육박하면서, 이슬람 성지 메카를 찾은 순례객 중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남부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북부에 폭염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극과 극’ 기상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이상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올여름 폭염과 장마철 강수량이 예년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보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탄생한 신조어를 배워본다.

## 기후 변화로 치솟는 먹거리 물가!

### 기후플레이션 (climateflation)

급격한 기후 변화가 먹거리 물가를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어요. 특히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폭염으로 기후 변화에 민감한 식료품의 생육과 수급에 문제가 생겨 기후플레이션의 압박도 커지고 있죠. 기후플레이션이란 ‘기후’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로 이상 기후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의미해요. 지구온난화로 다양한 유형의 기후 위기가 나타나면서 농산물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더 심각하고 빈번한 폭염이나 다른 요인들로 인해 이미 식료품과 다른 제품들의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요.

우리나라 정부는 여름철 단기 요인으로 발생하는 먹거리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고 해요. 배추·무 등 노지채소에 대해서는 수급 관리용으로 6월 중 봄배추 1만 톤(t), 봄무 5000t을 추가 비축하고 여름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6만7000t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또한, 지난해 같은 집중호우 상황에 대비해 상추·꽃고추 등 시설채소의 작황을 점검하면서도 피해 발생 시에는 재파종 비용, 출하 지원금 등을 지원해 신속한 재출하를 유도해 나간다고 해요.



## 구름 씨앗 뿌려 가뭄·산불 막을 인공강우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으로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세계 각국은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동 사막 국가 등 고질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태국 등 전 세계 37개 국가에서 150개 이상의 인공강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구름 씨앗을 뿌려 가뭄과 산불을 막는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고 해요. 기상청은 지난 2월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 기후 위기로 한반도 산불 위험이 날이 커지는 가운데 인공강우 실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2028년까지 건조한 산에 인공 비를 뿌려 촉촉하게 습도를 높여 산불 위험을 낮추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 합니다.

한편, 인공강우는 구름 속에 요오드화은(Agl) 같은 화학물질, ‘구름씨’를 살포해 물방울을 성장시켜 비가 내리게 하는 기술인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 만성화한 가뭄과 대형 산불을 예방하거나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행복한 일터 Happy Workplace



## People First

'제3회 삼정KPMG 챔피언십' 열띤 호응 속에서 마무리!  
우승컵은 ICE1본부가 들어 올려

16

## 삼정인톡

삼정인, 여름휴가 계획을 알려줘!

20

## 인재양성소

GEP 14기 우수자들의  
특별한 해외연수 이야기

22

## 세계가 열린다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미국 Korea Practice 편

24

## 이동규의 두줄칼럼

소통의 달인

26

## 心 Care

당신이 지쳤다는 신호 : '번아웃!'

28

## Samjong News

2024년 정기 파트너 승진 인사 발표 外

30

# ‘제3회 삼정KPMG 챔피언십’ 열띤 호응 속에서 마무리!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펼쳐진 ‘제3회 챔피언십’의 여정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봄과 함께 찾아온 삼정인들의 축제였던 챔피언십 현장을 살펴보고, 올해의 우승 본부를 공개한다. 아울러 개인전에 참가한 롱 드라이브 챔피언십 우승 삼정인들도 만나봤다.



1

## # 최다 인원 예선 참가, 열띤 호응으로 개최

봄과 함께 다시 찾아온 삼정인들의 대축제, '제3회 삼정KPMG 챔피언십'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는 모든 구성원이 대회를 즐기도록 새로운 경기 방식과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그 어느 때보다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Function과 본부 구분 없이 친한 동료와 선후배들이 함께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된 본부 예선전은 1,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2,300여 회의 라운드가 진행됐다. 이후 유튜브 라이브로 열린 선수 출정식에서는 예선에 참가한 이들에게 다채로운 상을 수여해 눈길을 끌었다. 메달리스트부터, 최다 버디, 최다 더블 보기, 최다 트리플 등 실력자부터 골린이들까지, 다양한 상을 골고루 수여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골프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들도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럭키 드로우 이벤트도 진행했다. 응원 메시지를 담은 럭키 드로우에는 2,000여 명이 참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호응을 얻었다.

## # 단판 토너먼트로 열린 경기!

16강전부터는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됐으며, 실감 나는 경기를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됐다. 경기는 횃수를 거듭할수록 긴장감이 흘렀고, 더욱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8강전에서는 지난 16강전에 이글을 기록한 박창현 Analyst(DA10)가 연이어 이글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대망의 결승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4강전은 6월 20일에 개최됐다. 4강전은 B&F2 vs Tax4와 ICE1 vs DA10의 승부로 열렸다. 유튜브 중계 채팅창에는 “나이스샷!”, “나이스 버디”, “과감한 샷”, “괜찮아요! 힘내세요!” 등의 다양한 메시지로 선수들을 응원했다. 응원 덕분인지 선수들은 지친 기색 없이 열정의 샷을 날렸다. B&F2 vs Tax4의 경기에서는 Tax4본부가 3홀을 남겨놓고 4홀을 앞서며 결승전에 먼저 안착했다. 이어, ICE1 vs DA10의 대결은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연장 3번째 홀에서 마침내 ICE1본부가 승리했다. 이에 결승전은 Tax4 vs ICE1이, 3, 4위전은 B&F2 vs DA10이 갖게 됐다.

- 1 올해 우승을 거머쥔 ICE1본부가 김교태 회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2 긴장 가득한 결승전 3 김교태 회장이 결승전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 4 롱 드라이브 챔피언십 여자부문 1등을 차지한 신도는 S.Senior가 럭키 드로우를 뽑았다
- 5 이승훈 Manager가 버디에 성공하며 포효하는 모습



## # 제3회 우승컵은 ICE1본부의 품으로

두 달여 간의 챔피언십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대망의 결승전과 3, 4위전 경기가 6월 27일에 열렸다. 결승전에는 특별 MC가 함께했다. 바로 유명 골프 유튜버 심짱(심서준)이 이동욱 Director(ICE3)와 함께 경기 진행을 맡았다. 심짱과 이동욱 Director의 재치 넘치는 입담 시너지로, 유튜브 실시간 중계는 더욱 인기를 끌었다. 특히,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삼정인들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다. “긴장하지 말고 파이팅!”, “스윙 멋지다”, “우승 가져!” 등 선수들을 응원했다. 무엇보다 결승전에서는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마련된 라이브 퀴즈쇼도 진행되어, 풍성한 재미를 더했다.

선수들은 경기 초반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이내 몸이 풀리며 본인들의 실력을 여과 없이 발휘했다. 우승 예측이 힘들 정도로 앞치락 뒤치락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다 18번 홀 동점 상황에서 ICE1본부 이승훈 Manager의 버디가 성공하며 1UP으로 ICE1본부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특히, 대회 3회 만에 Audit Function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

올해 우승팀은 우승컵과 500만 원의 상품권과 더불어, 7월 3일 김교태 회장과 특별 라운딩의 기회도 가졌다. 이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게 치열한 경기를 선보인 Tax4본부가 준우승을 차지

하며, 상품권 300만 원을 받았다. 3, 4위전 역시 선수들의 명경기가 펼쳐졌는데, DA10본부가 1홀을 남겨두고 2홀을 앞서며 3위에 올랐다. 이어 4위는 B&F2본부가 차지했다. 3위는 200만 원, 4위는 10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5위부터 16위를 기록한 팀들도 각 팀당 5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았다.

한편, 챔피언십 속 스페셜 경기인 롱 드라이브 챔피언십은 결승전에 앞서 진행됐다. 예선전 순위 역순으로 선수들이 참가해 멋진 기량을 펼쳤다. 올해는 5차례의 시도에서 최장 비거리를 기록으로 순위를 선정했다. 아울러, 올해 챔피언십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 가능한 럭키 드로우 이벤트, ‘경기 승부 맞이기’, ‘라이브 퀴즈쇼’ 등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 누적 인원 3,800여 명이 참여하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약 두 달여간 진행된 ‘제3회 챔피언십 대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최다 인원의 선수들이 예선에 참가하고, 또 이들을 응원하는 구성원들이 메시지를 보내오며 그 어느 때보다 큰 호응을 얻은 행사였다. People First 문화를 추구하는 삼정KPMG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일상 속의 즐거움을 만들고 인재들이 존중받는 행복한 일터를 꾸려갈 계획이다.

## 경기 결과

### ▶ 제3회 챔피언십 Top 4 🏆

#### 우승 ICE1본부

[강진제, 권내형, 이정훈, 이승훈]

#### 3위 Deal Advisory10본부

[김광재, 박창현, 박혜정, 정주현]

#### 준우승 Tax4본부

[노재균, 민우영, 손길현, 안태인]

#### 4위 B&F2본부

[손영균, 윤원일, 윤혜진, 허승문]

### ▶ 롱 드라이브 챔피언십 Top 3

#### 남자 부문

1위 Deal Advisory10 박창현 Analyst [285.67m]

2위 MC2 마영준 Manager [282.21m]

3위 RC 박사무엘 S.Consultant [280.08m]

#### 여자 부문

1위 IT Audit 신도은 S.Senior [239.2m]

2위 IT Audit 유민지 S.Senior [208.58m]

3위 B&F2 윤혜진 Manager [201.82m]



# 챔피언십을 빛낸 삼정인들의 우승 소감!

## 강진제 S. Manager (ICE1)

우리 본부는 매 경기 마지막 홀 또는 연장전을 치를 정도로 쉽지 않은 경기를 해왔는데, 어려운 과정을 겪은 만큼 우승의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Audit Function의 첫 번째 우승이 우리 본부가 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대회 준비에 고생하신 준비위원분들께 감사드리고, 4주 연속 치킨을 뜯으며 열렬히 응원 해주신 박성배 본부장님 이하 본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법인의 챔피언십 대회가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특히 골프를 치지 않는 구성원들도 참가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삼정KPMG의 축제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고, 내년 대회에서는 사상 최초 2연패를 달성한 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승훈 Manager (ICE1)

ICE본부에서 많은 인원들이 어울려 연습하고 응원한다고 고생 많았는데, 좋은 결실을 얻어서 기쁩니다. 특히, 감독(박홍민 상무님)/코치(임순철 상무님)님과 많은 전략회의를 하고, 박성배 본부장님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우승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16강에서 탈락하고, 혼자 2시간 동안 산책하면서 3회 대회에서 더욱 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을 드디어 이뤘네요. 내년에도 좋은 성적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정KPMG만의 특별한 이벤트들을 다른 회계법인에서도 많이들 부러워하는데, 이렇게 삼정KPMG 임직원들이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고생해주신 회장님과 대회 주최 임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 박창현 Analyst (Deal Advisory10) 남자 부문 1위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았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회를 준비해주신 운영위원회와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롱드라이브 대회와 함께 챔피언십 대회도 출전했는데, 매 경기 함께 응원해주신 본부원들께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하러 장소 어레인지 해주시고, 저녁 스के줄까지 조정하시면서 응원해주신 본부원분들, 무한한 응원과 지원을 해주신 진형석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이번 대회를 추진해주신 김교태 회장님과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추진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창현 Analyst



신도은 S. Senior

## 신도은 S. Senior (IT Audit) 여자 부문 1위

저는 법인의 챔피언십 대회로 골프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롱드라이브 1위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응원해주신 조원덕 부대표님, 한기원 전무님, 서윤석 상무님, 골프 조연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선과 본선에 참여하도록 배려해주신 이사님, 매니저님들과 라이브로 함께 시청 해주신 본부원분들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연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어요.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롱드라이브 경기를 관심 있게 봐주신 모든 임직원분들! 이번 계기로 '도은이행'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는데, 경기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 삼정인, 여름휴가 계획을 알려줘!

슬슬 높아지는 기온,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어느덧 여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여름을 맞이해 삼정인들은 어떤 휴가 계획을 세웠을까? 이번 호에서는 무더위도 식히고 심신의 에너지도 재충전하는 삼정인의 여름휴가 계획을 들여보자. 아울러 휴가 계획은 물론, 휴가를 백배 즐길 수 있는 꿀팁과 여름 노래도 함께 소개한다.



## Music is my life! 공연장에서 즐기는 휴가! 고광군 대리 (Q&RM-RM)

여름 추천곡: 윤하 - 'Parade'

윤하 소극장 공연과 사이 흠뻑소 티켓팅에 성공한 덕분에, 울여름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축제 같은 여름휴가를 위해 윤하의 'Parade'라는 신나는 노래도 들어 보시기를 추천해요. 그리고 수박과 꿀로 만든 달달하고 시원한 수박 주스와 함께요!

## 독도와 울릉도로 Go! 박형진 Senior (CM2)

여름 추천곡: 박명수 - '바다의 왕자'

울여름에는 꼭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말로만 하는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닌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 바다의 아름다움도 만끽하고,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 테마곡은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입니다.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할 때 이 노래를 함께 듣는다면 독도와 울릉도의 왕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 같아요. 하하. 독도를 가기 위한 제 계획은 포항 호미곶에서 소원을 빌고 대게를 먹은 후 울릉도로 간 다음, 울릉도에서 최고 해안 산책로인 행남 해안산책로를 거닐며 휴가를 만끽하고요, 독도에 도착해서는 독도 일출 전망대에 가서 아름다운 독도의 모습을 감상하며 저만의 휴가를 온전히 즐길 생각입니다!



## ESG까지 생각한 국내 자전거여행! 장현욱 Associate (IM1)

여름 추천곡: 에스파 - 'Supernova'

국내의 자전거 도로를 따라 자전거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ESG 도입에 따라 개인이 실행가능한 ESG 중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가장 쉽게 접근가능한 환경적 측면으로 접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기자전거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바다까지 달려가 보는 휴가를 다녀온다면 뿌듯함과 동시에 성취감도 가지며 여름휴가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온전히 즐기 위해서 휴가모드로 마인드셋하고, 걱정과 스트레스는 내려놓고 오로지 쉼에만 집중할 계획입니다.



## 어머니와 단둘이 떠나는 해외여행! 장수석 Associate (IM2)

여름 추천곡: 히사이시 조 - 'Summer'

올여름 휴가는 어머니와 단둘이 일본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신데요. 이번 기회에 어머니와 단둘이 여행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예쁜 사진도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휴가 동안에는 히사이시 조의 'Summer'라는 연주곡을 들으려 해요. 일본 여행이기도 하고, 여름에 'Summer'를 듣고 있으면 어디서든 평화로운 자연과 아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 여유로운 여름 휴가철에 자주 듣게 돼요.

## 엄마와 떠나는 런던여행! 전하란 Consultant (MC2)

여름 추천곡: Gentle Bones - 'A Day At A Time'

엄마와 단둘이 영국 런던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예정입니다. 좋아하는 영화 '노팅힐'의 배경지인 런던의 노팅힐 거리를 걸으며 음악도 듣고, 읽고 싶었던 책들도 읽고, 오랜만에 엄마랑 대화도 길게 길게 하려고 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와 하루에 몇 마디 대화를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사진도 많이 찍어 드리고, 여유롭고 힐링되는 시간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사이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려 합니다. "엄마 고맙고, 사랑해~!"



WORLD TOUR



## Tax2 & Tax4 연합 MT

### 김영근 Senior (Tax2)

여름 추천곡: 쿨 - '해변의 연인'

7월 초에 Tax2본부와 Tax4본부 Senior 직급의 연합 MT를 계획 중입니다. 평소에 업무로 보기 힘들었던 동기들이 한 곳에 모여 즐길 생각을 하니 벌써 두근거리네요. 래프팅, 서바이벌 등 여러 가지를 논의 중이고 넓은 숙소도 이미 예약했습니다.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도 하고, 밤에는 청소 및 설거지를 걸고 Tax2 vs Tax4의 정면승부 게임도 한 판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 MT 당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 쿨의 '해변의 연인'입니다. 여름휴가와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 소박한 분위기가 아름다운 전주로!

### 허어진 인턴 (PPC)

여름 추천곡: Daniel Caesar - 'Disillusioned', 한요한&SOLE - 'All day'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에 자주 내려가는 편이에요. 아는 지인 하나 없지만 전주만의 소박한 분위기와 길거리를 좋아하고, 무엇보다 맛있는 밥집이 많기 때문이에요! 전주에 자주가다 보니 단골 카페가 생겼고, 사장님이랑도 어찌다 보니 친해져서, 이번에 친구랑 같이 내려가면 사장님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여름 곡은 너무 시끄럽지도 않은 잔잔한 노래입니다. Daniel Caesar의 'Disillusioned'는 사운드도 좋고 적당히 흥얼거리게 되는 마성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할 때 창문 열고 들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All day'는 흥 오르고 싶을 때 들으면 딱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곡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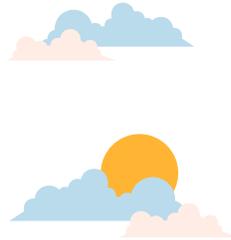


## 신혼여행 복수전! 임직원 혜택으로 떠나는 고성 호텔

김현규 Senior (IM3)

여름 추천곡: Wiwek & Skrillex - 'Killa' (feat. Elliphant)

신혼여행 복수전을 하려고 합니다. 5월에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사와의 마찰로 인해 생각했던 달콤한 허니문을 잘 즐기지 못하여 반기 공시 후 그 갈증을 해소하려 강원도로 떠나려고 합니다. 임직원 할인 혜택을 받아 고성에 새로 생긴 호텔에서 리마인드 허니문을 즐기려고 합니다. 저는 EDM, 그중 Dubstep(덱스텝)을 좋아하는데, 'Killa'라는 곡은 앨범 자켓부터 '여름', '정글', '물놀이'를 떠올리게 해주고, Dubstep 사운드만으로도 극한의 경쟁함을 느끼게 해주는 곡입니다. 여름에 물놀이 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로 추천해 드립니다!



## 작은누나 결혼식이 열리는 LA로!

### 지성근 Associate (Tax5)

여름 추천곡: 조지 - '언제든 어디라도'

미국 LA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작은 누나의 결혼식에 휴가 겸 다녀올 생각입니다! 덩치만 건조해서 그늘에 있으면 시원한 도시에서 바다도 구경하고, 뜻깊은 결혼식에서 사회를 맡게 되어, 소소한 힐링과 재미까지 즐기고 오려고 해요. 바쁜 4~5월을 보냈는데 비교적 천천히 흘러가는 6월에는 천천히 흘러가는 도시에서도 보내고 싶네요.

## 강원도 속초로 가족 여행

### 정한규 Associate (B&F3)

여름 추천곡: Calvin Harris - 'Summer'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속초로 떠날 계획입니다. 시원한 동해바다와 맛있는 해산물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속초의 유명한 관광지, 설악산 국립공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설악산 등반을 통해 맘을 훌리며 스트레스도 모두 날리고 올 생각입니다. 휴가지로 향하는 차에서는 Calvin Harris의 'Summer'라는 곡을 들을 거예요. 이 노래는 여름의 활기차고 시원한 분위기를 잘 담고 있는 곡이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행 일기를 통해, 여름 휴가의 생생한 추억을 기록하며 힐링하고 싶어요.

# GEP 14기 우수자들의 특별한 해외연수 이야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GEP 14기 우수자들의 해외연수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GEP(Global Elite Program) 14기 우수자들의 해외연수가 진행됐다. KPMG UK 오피스 투어부터 소규모 테마 여행 'Our London Story', 런던 문화탐방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 후에 개인 자유 여행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호에서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온 GEP 14기 우수자들의 연수 후기를 소개한다.



타워 브리지를 배경으로

## 좋은 인연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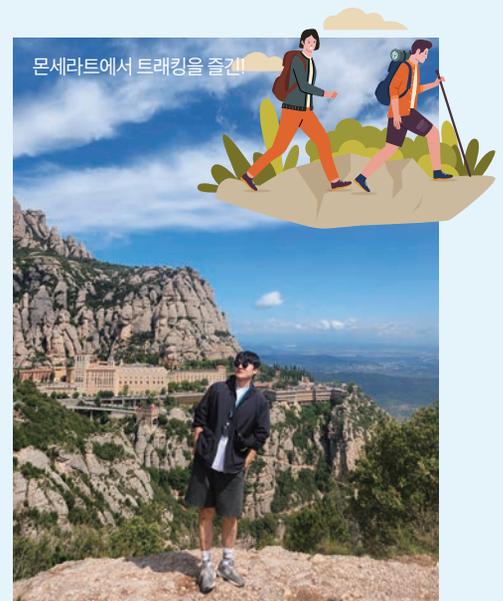
### 최종찬 S.Analyst (Deal Advisory8)

이번 연수는 저에게 'Lifetime Membership'을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입사 당시 코로나19로 신입 연수가 온라인으로 진행돼, 타 본부 동기들을 알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Tax와 Consulting본부에도 마음이 맞는 동기가 생겨 앞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조원들과 맑게 갠 햇살을 배경으로 샴페인 잔을 부딪친 런던에서의 만찬 시간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개인적으로 단체 활동 전에는 베를린을, 단체 일정 후에는 파리를 다녀왔어요. 취미로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데 베를린과 파리에서 각각 클래식 공연장으로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닉, 파리 샹젤리제 공연장에서 클래식 공연을 보고 왔어요. 항상 음원으로만 듣던 유명한 오케스트라들의 공연을 실황으로 들으니 감동이 더했답니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갖게 해준 법인과 또 배려해 주신 본부장님, 본부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이러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팀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 두려움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시간

### 양동권 S.Consultant (RC)

저에게 GEP 해외연수는 '부화'였습니다. 해외 경험이 없는 것에 무섭고 두려웠지만 조원들과 함께 런던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이 자신감으로 혼자 여행하는 일에서 하고 싶은 것들에 도전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공식 일정 이후 혼자서 스페인 남부 지역을 여행했는데, 시도하지 않고 후회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몬세라트에서 바위산 트레킹, 네르하에서 지중해 수영, 말라가에서 현지인과의 러닝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온몸으로 스페인을 느끼고 돌아왔어요. 이외에도 조원들과 런던에서 함께한 시간들도 기억에 남는데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번덕스러운 날씨 끝에 본 맑은 하늘의 타워 브리지 풍경은 마치 힘든 일을 이겨내고 서로 응원하는 기분이 들어 기억에 남아요. 또한, 동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나누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 점을 바탕으로 노력하고, 도전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동료가 되고 싶어요!



몬세라트에서 트레킹을 즐긴!



## 부부가 함께한 연수! 행운과 행복, 모두 만끽해

### 양지원 S.Senior (IM4)

네 잎 클로버는 행운을 상징하고, 세 잎 클로버는 행복을 상징한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세계 이번 연수는 '일곱 잎 클로버'입니다. 저는 GEP라는 행운의 기회를 얻어, 매 순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식 일정을 통해 동료들과 친목을 쌓을 수 있었고, 함께 GEP 우수자로 선정되어 자유 시간을 즐긴 남편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ICE2본부 박준현 회계사와 입사 동기이자 작년 5월에 결혼한 부부인데요, 함께 면접 준비하며 떨던 우리가 무려 GEP에 선정되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사실은 지금도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유 일정으로 파리, 인터라켄, 부다페스트, 프라하를 함께 여행하며 일상을 내려놓고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성장과 풍성한 경험의 기회를 준 법인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우수한 동료와 선배들을 본받으며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GEP 연수, UK 오피스에서

## 꿈 같던 시간들!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

### 최아정 S.Senior (Tax1)

이번 GEP 해외연수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꿈'입니다. 바쁜 시즌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떠난 GEP 해외연수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규모가 압도적이었던 KPMG UK에서 되새겨 본 꿈, 안락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플라타너스 나무, 끝이 보이지 않았던 원저성의 산책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5조 GEP 동기들, 영국과 스페인 자유여행을 함께하며 아이처럼 좋아하던 부모님의 얼굴, 공항에 마중 나와줬던 남자친구! 행복한 꿈속의 장면들처럼,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KPMG UK에서 파견 근무 중이신 선배님들의 강연이었습니다. 직원 수가 18,000명 정도에, 고층 빌딩 전부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규모가 압도적이었던, KPMG UK에서 각자의 꿈을 안고 파견 근무 중인 선배님들의 강연을 통해 저 역시도 용기와 열정, 그리고 꿈을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 시간을 통해 부모님과 유럽을 여행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하시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페인 네르하에서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들!

#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미국 Korea Practice 편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 에너지, 제조업 관련 기술 정책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 방안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기회의 땅이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미국 현 상황에 대해 KPMG 미국 애틀랜타 Korea Practice에 파견 중인 한은미 S.Manager와 임혜정 S.Manager를 통해 들어본다.

글 미국 Korea Practice 한은미 S.Manager (eunmihan1@kpmg.com) & 임혜정 S.Manager (michellelim4@kpmg.com)



## 미국 Korea Practice



Korea Practice는 1982년 8월 뉴욕 사무소에서 처음 설립되어 42년 이상 KPMG는 미국 내 4대 회계 법인 중에서 가장 큰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명 이상의 경험 많은 이중 언어 전문가들이 한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에 있으며, 감사, 세무, 자문 서비스를 포함한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중 언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KPMG 회원사 네트워크의 지역, 국가 및 글로벌 자원에 의해 지원된다. 미국 내 및 전 세계 KPMG 네트워크를 통한 풍부한 자원과 오랜 경험 및 노하우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기업에 특화된 니즈를 이해하고, 한국 본사와 신속하고 명확한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한국 비즈니스 팀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및 남미에서도 1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비즈니스팀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한국어 구사 전문가가 250명 이상 있다.

## # 제47대 미국 대선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대선은 현시점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변수이다. 기업들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재집권 시 기존 탈탄소, 그린전환 기초가 유지 및 강화될 전망이다 데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시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조직과 제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및 차량용 이차전지 대량 생산 및 소비 보조금의 유지 또는 축소 여부와 직결된 사안이라 기업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을 개정하여 배터리와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IRA의 핵심은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에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미국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역시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새로운 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170억 달러(약 22조 8천억 원)를 투자하여 약 500만㎡(150만 평)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 수출이 줄고 미국 수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수출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진출 가속화

많은 한국 기업이 '기회의 땅', 미국에 진출하고 있다. 백악관이

2023년 6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미국 전역에서 4,7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민간 투자가 발표됐는데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의 투자 규모는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미국 동남부의 조지아, 앨라배마, 테네시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미국 동남부 각 주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력 개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구축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남동부의 조지아 주는 미국의 어떤 지역보다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곳이다. 미국 전역을 비행기로 두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에 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까지 맞물리면서 이곳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아자동차 공장도 금호타이어, 한화큐셀 등 굴지의 한국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드는 2022년부터 현대, 기아의 첫 미국 전기차 공장을 조지아주 사바나에 투자하기 시작하여 주 정부로부터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받고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 공장을 가동하여 약 8,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 # 미국 비즈니스 시 이것만은 꼭!

미국에서는 회의나 약속 시간을 엄수하고 지각 시 사전 연락을 중요시하며, 준비된 상태에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적인 비즈니스 토론 전에 가벼운 주제로 스몰토크(Small Talk)를 하고, 의사소통은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해야 한다. 구두 약속도 계약과 동일하게 중요시하며,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를 존중하고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피해야 하며, 특히 여성의 외모, 나이, 결혼 여부에 대한 언급은 금물이다. 회의 전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CQ를 높여라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 소통의 달인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即不痛 不通即痛)’, 이 말은 막힌 것을 통하게 해주면 아프지 않게 된다는 <동의보감>의 핵심 원리다. 인간이 피 순환이 안 되면 병에 걸리듯이 소통은 조직의 실패줄 그 자체다. 따라서 개인이나 조직이나 공히 자신의 ‘의사소통 지수(CQ)’를 높여야 한다.

### # 소(疏)는 통(通)보다 중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소통(疏通)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도 없을 것이다. 이는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사회란 반증이기도 하다. 우선 소통에서 소(疏)는 통(通)보다 중요하다. ‘소(疏)’란 상대에게 마음의 빗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원래 말주변이 없다고 둘러대거나,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투덜대며 불통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말귀를 못 알아듣게 한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

면 이러한 ‘만성 소통장애증’의 치료는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에서 10년 이상 살았다고 하는 어느 외국인 작가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서 문화장벽, 언어장벽을 들먹이지만 한마디로 그건 핑계라고 일축한다.

### # 말이 통하면 모든 게 통한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쉽고 단순하게 핵심을 말해야 한다.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해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



션 용어 중에 'Elevator Pitch'가 있다. 이것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자신만의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여 중요한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화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화술이 아니라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전달 과정과 방법의 문제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되고 만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조직에서 소통의 핵심 가치는 언어적 구사가 아니라 진실된 태도이자 마음이다.

- 첫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
- 둘째, 결론부터 이야기하라.

### # 조직의 통풍성

국내 모든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시스템적인 것이 아니라 소통의 문제다. 조직 내 소통의 3가지 차원은 부서 간 · 상하 간 · 동료 간 문제로 집약된다. 다

양한 조직의 경영평가를 해보면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곧 그 조직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직급이 한 단계씩 멀어질수록 심리적 거리감은 제곱으로 커진다는 것은 '켈의 법칙(Kel's law)'이다. 따라서 일단 윗사람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

결국 리더십은 소통의 게임이다. 특히 경청(傾聽)은 소통의 전공필수 과목으로 두 귀로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다. 영국인들은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고 강조한다. 과거 우여곡절 끝에 애플에 복귀한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에게 자신을 CLO(Chief Listening Officer)라 불러달라고 주문했다. 서양판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지혜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나, 듣기를 배우는 데는 60년(耳順)이 걸린다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좋은 임금이 되는 학문, 즉 성학의 '성(聖)'이란 글자인데, "입(口)보다 귀(耳)를 우선하리"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소통은 입이 아니라 귀의 문제라는 것이다.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두 개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로 최근 출시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지문(Thinkprint)』 저자이자 초대형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 작가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근본원리를 비롯하여 경영 각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언어의 쇼츠 형식으로 풀어낸 독창적인 초미니칼럼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AI 시대 인간만의 생각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 아포리즘 결정체다.



# 당신이 지쳤다는 신호 : ‘번아웃’!

번아웃(Burn-out),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용어다. 더 전문적으로는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이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번아웃 증후군’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린 증상’으로 정의된다. 세계보건기구가 주목할 정도이니,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흔한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설진미 상담사를 통해, 누구나 흔히들 겪을 수 있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살펴본다.



## # 번아웃,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는다

최근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342명을 대상으로 ‘번아웃 증후군 경험’을 주제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직장인 69.0%가 과도한 업무량과 직장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 반복되는 업무, 업무 능력의 한계, 성과 압박 등의 이유로 한 번쯤은 번아웃을 겪었다고 한다. 문제는 번아웃이 직장 스트레스로 흔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번아웃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자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요즘 집중력이 없어서 ADHD가 아닌가 싶어요”, “자꾸만 잠이 깨고 잠들기 어려워요”, “요즘 두통이나 소화불량을 달고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요”,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등의 호소는 번아웃을 의심케 한다. 이 순간 바로 되묻는다. “최근에 주 몇 시간 일하셨나요?”, “혹시 직장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일이 있었나요?”, “주말에는 직장을 잊고 쉴 수 있었나요?” 이 질문의 답을 듣다 보면, 탈이 안 나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심지어 번아웃을 넘어서 우울증이 의심되기도 한다.

사실 번아웃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는다. 이 증상을 겪는 분

### Profile

### 설진미

삼성KPMG  
전임 심리상담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고려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으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임상심리실에서 슈퍼바이저로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10년간 일하며 심리상담, 조직컨설팅, 강좌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에 속한 직장인들을 만나 삶의 불안과 고통, 갈등을 성찰하고 성장을 모색해 왔으며, 조직문화를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들은 Chance(1981)\*가 말한 4단계를 거친 분들이 많았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열심이던 시절이 있었다. 특히 일을 즐기고 동료/상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며 자신의 능력에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일하는 즐거운 단계이다. 두 번째는 침체되는 단계로 열심히 일을 해도 성장이나 발전이 없다고 느낀다. 세 번째는 욕구 좌절의 단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다들 노력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마지막으로 무감각해지는 단계로 업무는 벅차고 흥미는 오래전부터 떨어지고, 더 이상 주변에 관심이 없어서 자신에게만 주의를 기울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 단계이다. 다들 어느 단계에는 속할 것이다.

### #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신호! 누구나 겪을 수 있어

사람들은 보통 원치 않는 증상을 겪으면, 이를 문제 삼고 없애려는데 집중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번아웃의 어원인 'burn out'은 '완전히 타버리다', '기진맥진하다', '탈진하다' 등을 뜻한다. 마치 장작이 불에 활활 타버린 재만 남은 상태처럼, 마음도 과부하가 걸려 섰다운된 상태를 의미한다. 더 열심히 하고자 해도 소용없는 무기력한 상태이다. 이런 의미에서 번아웃 증후군은 무기력감이 핵심 감정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마음의 메시지다.

직장인이 무기력해지면 흔히 자꾸만 업무 중 딴짓을 하게 되고, 주말에는 누워만 있고 싶고, 시작하는 것이 힘들어지며, 쉬어도 쉬어도 누워있고만 싶어진다. 이러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당황하고 자신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불안해한다. 그러나 답은 간단하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 당연한 사실을 잘 모른다. 우리는 한동안 100km 속도로 달린다. 그러나 여기서 착각한다. 계속 이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빠른 속도로 지쳐서 70km로 속도가 느려졌는데도, 오히려 느린 속도에 책망한다. 왜 100km 속도로 못 달리지? 자동차라면 계속해서 종전 속도로 달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람이다. 과속 후에는 피로해지고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직장인들 중에는 자신도 한 날 인간임을 받아들이지 못해 계속 100km를 유지하려고 한다. 주로 카페인을 의존하지만 카페인은 무기력감을 더 악화시킨다. 일시적으로 긴장감을 높이고 피곤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과도하게 에너지를 쓴 만큼 주말에 무기력함을 더 경험하게 한다. 결국 탈이 난다. 번아웃의 신호는 더 이상 그 속도를 달릴 수 없다는 경고이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신호다. 누구나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다.

### #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번아웃으로 무기력을 겪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일단 무기력함을 온몸으로 느껴보라. 얼마나 격렬하게 아무 일도 하기 싫은지, 그동안 얼마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왔는지, 몸이 빠근하지, 얼마나 오랫동안 긴장하며 일을 해왔는지 자각해보라. 일이 잘못될 까봐, 내 몫을 못 해낼 까봐, 내가 실력이 없는 사람일 까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조바심으로 늘 긴장되었던 자기를 살펴보라. 그동안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해 왔는지 되돌아보자. 매일 전투 같은 일상을 멈출 힘은 없지만, 잠시 멈추는 것 자체에 자책감을 느끼지 말자.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하는 자신에게 게을러 졌다고 비난하지 말자. 오히려 무기력이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느껴보고 그 증상을 이해해보자. 이대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다는 무기력의 언어를 받아들여보자.

번아웃 증후군의 많은 솔루션들이 무기력을 벗어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무기력감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무기력한 상태를 못마땅해하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가 더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 마음은 용수철과 같다. 힘든 감정이나 상태를 억제하고 회피할수록 그 압력은 더 강해진다. 오히려 무기력과 싸우기보다 무기력한 상태를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비로소 그동안 착취해 온 자신에게 물어보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때로는 휴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수고했다'는 인정의 한마디일 수도 있다. 자신에게 이를 해줄 때 진정한 휴식이 시작될 것이다.



\* Chance, A. B. (1981). The burnout proces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 SAMJONG NEWS

## 2024년 정기 파트너 승진 인사 발표

### 김민규·김신·노상호·신재준 부대표 승진

삼정KPMG가 '2024년 정기 파트너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파트너 인사에서 김민규, 김신, 노상호, 신재준 전무가 부대표로 승진했다. 김민규 부대표는 2002년 삼정KPMG에 입사해 감사부문에서 금융 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김 부대표는 올해부터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도 겸임하고 있다.

김신 부대표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KPMG를 거쳐 1996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회계심사국·자본시장감독국 팀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당국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2020년부터는 삼정KPMG에서 감사 품질 및 리스크 관리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노상호 부대표는 2002년 삼정KPMG 감사부문에 입사해 제조 산업 본부를 이끌고 있으며, 제조 및 에너지 산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8년부터 3년간 KPMG 호주에서 글로벌 선진 감사 업무도 두루 거쳤다.

신재준 부대표는 2002년 삼정KPMG 감사부문에 입사해 주요 금융 회사의 회계감사와 금융업 IFRS 도입, 회계·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자문을 수행한 금융 산업 전문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KPMG 독일 파견 근무를 통해 국제적 감각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전무 21명, Equity Partner 23명, Salary Partner 34명, Principal 및 Senior Director(전무) 7명, Senior Director(상무) 14명 등이 승진했다. 아울러, 2024년 신입 파트너에 총 28명이 선

임됐다. 이번 신입 파트너에는 IT 감사,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내부통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전가격 등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임용됐다. 공공부문, 인프라,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산업 전문가들과 기업 및 사모펀드(PE) 중심의 M&A 전문가들도 포함됐으며, 2명의 여성 파트너도 선임됐다.

한편,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은 “차별화된 핵심 경쟁력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변화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적용할 것”을 강조하며, “고객보다 한발 앞선 시각으로 새로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최상의 고객 만족을 이뤄 나가자”고 덧붙였다.



# 파트너 승진 인사

## 부대표



신재준 (B&F1)



김민규 (B&F2)



노상호 (IM2)



김신 (Q&RM-DPP)

## 전무



복정수  
(B&F2)



조형욱  
(B&F2)



최재혁  
(B&F3)



김시우  
(CM2)



신문철  
(ICE1)



김정기  
(ICE2)



노정한  
(ICE2)



허재훈  
(ICE3)



최연석  
(IM2)



김정은  
(Tax3)



이상무  
(Tax3)



조상현  
(Tax3)



정소현  
(Tax5)



조계승  
(DA1)



최상욱  
(DA4)



김유미  
(DA5)



정희석  
(DA6)



정현경  
(DA7)



여준형  
(RC)



박원  
(MC3)



제원용  
(Q&RM-DPP)

## Equity Partner



서정혁 (B&F1)    김종석 (B&F3)    도정욱 (CM2)    윤주현 (ICE1)



이주영 (IM1)    이재능 (IM2)    전현호 (IM3)    서윤석 (IT Audit)



신광근 (IT Audit)    이병훈 (Actuaries)    장지훈 (Tax1)    이근우 (Tax2)



서유진 (Tax3)    송형우 (Tax3)    김진현 (Tax4)    천재준 (DA4)



홍민성 (DA6)    김형천 (DA8)    김세호 (Digital)    이지현 (Digital)



김현일 (MCS1)    백승욱 (MC2)    박원일 (Q&RM-DPP)

## Salary Partner



정현호 (B&F2)    천성협 (B&F2)    김경아 (B&F3)    이현승 (B&F3)    이상기 (CM1)



민혜영 (CM2)    조한얼 (CM2)    설하영 (ICE1)    이동윤 (ICE1)    최연택 (ICE2)



설원 (ICE3)    변상현 (IM1)    이병훈 (IM1)    이학범 (IM2)    황현동 (IM2)



백명중 (IM3)    범승형 (IGH)    손민 (Audit 임원실)    한대근 (Audit 임원실)    이현규 (Tax1)



오종현 (Tax2)    최형훈 (Tax2)    백천욱 (Tax3)    김지선 (Tax4)    안성기 (Tax4)



오영빈 (Tax6)    심재길 (DA5)    유진우 (DA7)    정재훈 (DA8)    최진영 (Digital)



정대권 (MC1)    서상현 (MC2)    조효상 (MC3)    광길중 (MC4)

**신임 파트너(Associate Partner) - 상무**



허승훈 (B&F2)    백종완 (B&F3)    신광진 (B&F3)    이재영 (CM1)    김재민 (CM2)



임순철 (ICE1)    심진보 (ICE2)    김영선 (ICE3)    최연 (IM1)    오윤근 (IM3)



전태웅 (IM4)    정승환 (IA)    김보성 (IT Audit)    정연우 (Tax2)    류수석 (Tax3)



이동화 (Tax4)    허재영 (Tax5)    이영호 (Tax6)    채요한 (DA1)    안세민 (DA5)



김태웅 (DA6)    박송학 (DA9)    백창현 (DA9)    김지형 (Digital)    정태경 (RC)



송재원 (MC1)    조용철 (MC3)    이승훈 (Q&RM-DPP)

**Principal, Senior Director - 전무**



김도우 (Tax 임원실)    나승태 (Tax 임원실)    최장희 (Actuaries)    천상훈 (RC)



최석운 (MC3)    김정연 (Q&RM-RM)    김수연 (Q&RM-D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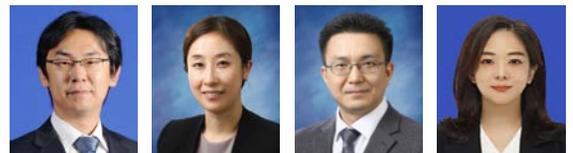
**Senior Director - 상무**



도의연 (ICE1)    박혜경 (ADC)    김진규 (Actuaries)    조성진 (Tax3)



서경화 (Tax4)    신상욱 (DA2)    이창민 (Digital)    조진 (Digital)



고경석 (MC2)    이혜령 (MC2)    조성환 (MC3)    김명희 (MC4)



양유정 (Q&RM-DPP)    김규림 (ERI)

## '제10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삼정KPMG가 지난 7월 4일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300여 명의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10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ACI 세미나는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업계 최초로 매해 개최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 인원 4,000명 이상의 감사 및 감사위원 등이 참석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감사위원회 세미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삼정KPMG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최근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해 감사·감사위원 뿐만 아니라 이사회 수준에서 살펴보는 ▲사이버 보안, IT 통제 및 디지털 감사 ▲이사와 감사(위원)의 준법 감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사회의 역할을 안내했다.

세미나에서는 동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감사위원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 사항과 활동을 동영상 드라마로 제작해 생동감 있게 전했다. 첫 번째 드라마에서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과 IT 통제, 디지털 감사의 이해'를 다뤘고, 박원일 상무가 사이버 정보보안(고객 정보 보안 등)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관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IT 통제와 시를 활용한 디지털 감사 기법과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Contact: : ACI 세미나 운영사무국(02-2112-0296, kr-fmsamjongkpmgaci@kr.kpmg.com)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사와 감사(위원)의 준법 감독'을 주제로 제작한 드라마를 시청했으며, 심정훈 상무가 준법 감독에 있어 책임 존재 판례를 중심으로 이사회 역할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드라마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사의 역할'을 다뤘고, 김유경 전무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며 비재무 지표 관련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국거래소 밸류업 지원팀 윤재숙 부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한국거래소 및 기관의 지원 체계와 상장사가 작성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중심으로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끝으로 삼성KPMG ACI 자문교수인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만우 교수는 다수의 감사위원장 경험을 통해 이사회가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교수는 이사의 준법 감독 의무를 다룬 판례를 예시로, 이사회는 사업과 관련된 위험 사항 인지와 준법 모니터링 의무 및 권한 행사를 충실

히 이행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이외에도 김우진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본비용(COE)을 비교해 적절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삼성KPMG 감사부문의 변영훈 대표는 "삼성KPMG ACI가 제작한 영상과 강연이 실제 이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회계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삼성KPMG ACI'가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역할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10회 ACI 세미나'는 '삼성KPMG 아카데미'와 '삼성KPMG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 삼성KPMG 아카데미



▲ 삼성KPMG 공식 유튜브

\* 스마트폰으로 각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아카데미 혹은 공식 유튜브 계정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

# 제10기 삼정KPMG ACI 자문교수단 위촉식

| 일 시. 2024년 6월 27일 (목) | 장 소.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8층 (은하수라운지)



삼정KPMG가 6월 27일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교수단에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연임됐다.

**이만우 교수**는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회계·세무 분야 손꼽히는 전문가로, 에스원 사외이사에 재임 중이다.

국제법 석학으로 알려진 **성재호 교수**는 세계국제법학회(ILA) 한국지부 회장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는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과 나이스평가정보 사외이사(감사위원)를 맡고 있다.

**신진영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등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다. 현재는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을 수행하고 있다.

**박소정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AIA생명 감사위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박 교수는 보험, 재무금융 뿐만 핀테크 전문가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자문교수단은 내년 6월까지 임기 1년간 삼정KPMG ACI 활동 전반에 대해 자문을 맡게 된다. ‘감사위원회 저널’ 등 ACI 간행물 기고 작성 및 감수를 비롯한 전문 분야와 관련된 감사위원회 활동을 자문한다. 그 외 정기 회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 삼정KPMG-셀로니스, 'AI 업무 혁신 세미나' 개최 ... AI 기반 프로세스 혁신 지원 위한 업무 협약 맺어

삼정KPMG가 글로벌 최대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 기업인 셀로니스와 함께 지난 6월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AI 기반 업무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셀로니스는 프로세스 마이닝(Process Mining)과 AI를 활용한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포춘(Fortune) 500대 기업 절반 이상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기업의 다양한 업무 처리 시스템에서 기록되는 빅데이터의 이벤트 로그를 분석해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을 줄이고 업무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와 셀로니스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내외 선진 AI 기반 업무 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은 라르스 라인케미어(Lars Reinkemeyer) 셀로니스 글로벌 서비스 총괄이 발표자로 나서 성공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전했다. 이어, 삼정KPMG Digital본부 최진영 상무가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을 활용한 상시 PI(Process Innovation) 전략을 설명했다. 삼성화재의 김민경 상무는 AI 기반 상시 PI 적용 사례를 소개했으며, 마지막으로 셀로니스의 엘리 김(Ellie Kim) 이사가 셀로니스 프로세스 마이닝 플랫폼과 데모를 선보였다.

한편, 본 세미나 이후 삼정KPMG는 셀로니스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프로세스 혁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삼정KPMG는 셀로니스 제품을 활용해 국내 기업 고객들에 AI 기반 상시 PI(Process Innovation) 컨설팅을 수행하며, 셀로니스는 솔루션 제공과 함께 PoC(Proof of Concept · 기술검증)를 돕는다. 양사는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협업 마케팅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AI 기반 상시 PI 컨설팅 서비스가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FY24 NEW PARTNER & S.DIRECTOR 승진자 교육 진행

6월 21일 'FY24 New Partner 승진자 과정'이 역삼동 삼성KPMG 본사에서 진행됐다. 삼성KPMG의 New Partner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승진자 과정에서 먼저 PPC 신영아 상무가 파트너 승진으로 법인에서 지원되는 여러 베네핏을 설명했다. 또한, E&I 파트너 장영내 부대표가 파트너의 독립성 준수에 대한 강연을, Country RMP 양승열 대표가 'Quality Performance'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BD&Markets 신경철 부대표가 '삼성KPMG BD 전략 및 KPMG Way'에 대해, People First Leader 신장훈 부대표는 'People First, 2024'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Function Head와의 대화'를 통해 법인의 오늘을 이끌고 있는 리더와 신입 파트너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으며 파트너로서 새로운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에 대해 솔루션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승진자들은 삼성KPMG 김교태 회장의 'CEO 축하 메시지'를 통해 승진을 축하하고, 롯데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축하 만찬을 통해 신입 파트너로서 새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6월 28일에는 'FY24 S.Director 승진자 과정'은 삼성KPMG 김교태 회장의 'CEO 축하 메시지'로 시작됐으며, 블루밍 경영 연구소의 김상임 대표가 '리더의 자기인식, 강점 기반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룹 류재언 변호사가 'MZ세대와의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소통 강연을 펼쳤다.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역할과 신뢰, 성장, 전문성 역량에 대해 이해하고, Vision 2025 달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 미래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위해 'FUTURE ACADEMY' 진행

삼성KPMG가 K-디지털트레이닝(KDT)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소프트웨어(SW)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삼성KPMG Future Academy'를 개설했다. K-디지털트레이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직업 훈련 사업으로, 국내외 디지털테크(Digital Tech) 기반 컨설팅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관련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중견기업 이상 IT 및 신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을 개발 및 관리하며, 훈련생들에게 선도 기술을 제공한다. '삼성KPMG Future Academy' 과정은 삼성KPMG 현직 컨설턴트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DT/DX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K-디지털 트레이닝 수강 이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 삼성KPMG-WCD, '2024 제2차 ESG 연구회' 개최

삼성KPMG가 세계여성이사협회(WCD Korea)와 함께 진행하는 '2024년 제2차 ESG연구회'가 지난 6월 17일 포스코센터에서 '주주행동주의와 밸류업의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행동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주제 발표를 통해 주주 행동주의의 다양한 사례와 역사에 대해 소개했고,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주주 행동주의의 부상과 과제'를 통해 주주 행동주의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시각을 공유했다.

WCD-KPMG ESG 연구회를 기획, 운영하는 전략분과 위원장 정다미 명지경영대학장은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 이후 행동주의 캠페인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취약하거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은 국내 기업들에게 행동주의 펀드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라며 "이사회 구성원인 WCD 회원들에게 이사회-주주 간 주주환원 등의 재무정책 관련 소통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세미나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WCD-KPMG ESG 연구회는 삼성KPMG ESG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요 ESG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주요 기업의 이사로 활동 중인 WCD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교육 이수 현황 한눈에 확인하는 'LEARNING DASHBOARD' 오픈

삼성KPMG가 CPE 및 필수 Compliance 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Learning Dashboard'를 오픈했다. 개인 및 본부에서 직접 필수교육 이수 현황을 대시보드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사내 및 한공회 CPE 이수 현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오픈된 대시보드를 통해 개인은 더 책임감 있게 필수 교육 및 의무 교육 시간을 충족할 수 있으며, 본부 차원에서는 본부원 전체의 이수 현황 열람이 가능해 이수 관리가 용이해진다.

## 사랑나눔

### 세계 환경의 달 기념 '삼성KPMG 푸른 지구 만들기' 캠페인

삼성KPMG가 세계 환경의 달(6월)을 맞아 6월 한 달간 임직원과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회사 또는 가정에서 For Better를 즐겁게 실천할 수 있도록 사내 다회용컵 이용 챌린지, 옷장 정리(기부), 장난감 재활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내 파란행복 카페에서 음료 구입 시 다회용컵을 이용한 횟수가 동기간 대비 89.6%나 증대되는 결과를 기록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제가 투자하는 아주 조금의 시간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동시에 법인의 ESG 실천을 몸소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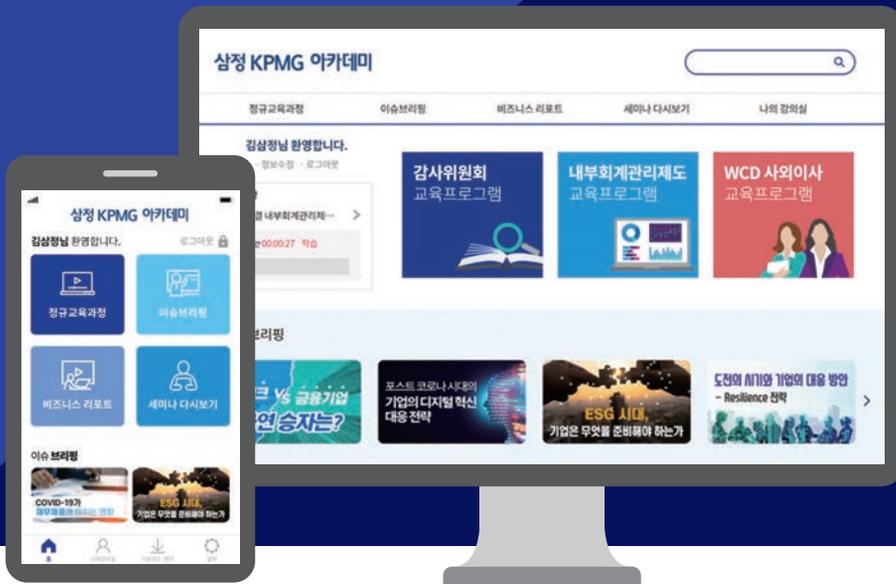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이슈 브리핑

비즈니스 리포트

세미나 다시보기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http://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mailto: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